

## 의회활동

### 원구성

〈의장〉 윤화섭

〈부의장〉 김유임, 천동현

〈정당별 의석〉 더불어민주당 69석, 새누리당 52석, 무소속 1석이다.

**운영·의안 처리** 제9대 도의회는 2015년 한해 2차례 정례회와 10차례 임시회를 합해 140일간의 회기를 운영해 566건의 안건을 접수, 519건을 처리했다. 처리한 안건은 조례 305건(의원발의 230건, 위원회 제안 18건, 도지사 제출 41건, 교육감 제출 16건), 규칙 5건, 승인·동의안 39건, 중요동의 24건, 결의안 40건, 건의안 45건, 예산·결산안 16건, 의견청취안 1건, 재의 2건, 청원 8건 등이다.

**주요 의정활동**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도내 31개 전 시·군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했다. 지역상담소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치돼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 고충민원 수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한다. 또 주민의 건의 및 민원사항을 접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상담소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는 지역주민과의 상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퇴직공무원,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감염병 예방 조례'를 의결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규칙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관리본부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강제처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관리 내용을 담았다.

'사회적일자리 조례안' 통과도 전국 첫 사례다. 조례는 도지사가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일자리 개발 지원단 운영,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도민 의견수렴 창구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기존 60만원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도록 했다.

**누리과정 갈등…연정 자율예산 편성**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놓고 새누리당 및 집행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상태와 보육대란을 맞았다.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도의회가 4개월분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며 일시 봉합됐다.


도세 보통세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2 이내에서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 주택개조자금 융자 등에 쓰는 내용의 주거복지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전자파안전심지대로 지정,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파 안전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을 놓고 도 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마찰을 빚었다.

예산연정에 따라 7월 1차 추경과 9월 2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각각 100억원과 300억원을 자체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 자율편성 예산으로는 500억원이 배정됐다. 도의회가 예산 일부를 자율 편성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강원도



道花 : 철쭉

道木 : 잣나무

도청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도지사 : 최문순(崔文洵)

道鳥 : 두루미

캐릭터 : 반비

## 개관

**연혁** 상고시대에는 예국(濊國)과 맥국(貊國)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전해왔다. 8세기경 공예의 도읍지로 철원이 선택됐고, 고려 성종 14년(995년)에 지방행정구역을 10도로 분할하면서 삭방도(朔方道)로 설치됐다. 그 후 명주도, 강릉도, 강릉사방도, 교주(交州)강릉도로 부르다 조선 태조 4년(1395년)에 강원도라 칭했다.

1986년 10월 1일 삼척읍이 시로 승격, 삼척시로 분리 증설됐고, 1989년 1월 1일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개칭된 데 이어 1992년 2월 1일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개칭됐다.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원주시와 원주군, 강릉시와 명주군, 삼척시와 삼척군이 통합됐다. 1998년 5천 명 미만 과소동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해 39개 동이 통·폐합됐다.

통합시 출범 이후 원주시가 2007년 10월 15일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는 인구 30만 명 안팎의 도시로 강원도 내 3대 중핵도시를 형성, 발전기틀을 다지게 됐다.

**면적·행정구역** 총면적은 2만569km<sup>2</sup>이며, 이 가운데 휴전선 이남이 82%인 1만6천873.50km<sup>2</sup>로 남한면적 10만139.88km<sup>2</sup>의 16.8%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전체 면적의 82%인 1만3천795km<sup>2</sup>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7.4%에 해당하는 1천120km<sup>2</sup>, 기타 10.6%로 구성되어 있다.

경지면적은 밭 6만8천756ha, 논 3만9천972ha로서 논밭의 비율은 논이 36.8%, 밭이 63.2%이며 농가 호당 면적은 1.56ha이다.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중앙부 동쪽의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크게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되며, 동서로 약 150km, 남북으로 약 243km에 달하며, 해안선의 길이는 402km이다.

행정구역은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774호(1994년 8월 3일 공포)로 7시, 11군으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187

읍·면·동, 4천164동리, 2만1천593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가구** 2015년 12월 현재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는 68만5천573명에 154만9천507명이며, 성별로는 남자 78만1천434명(50.4%), 여자 76만8천737명(49.6%)이다.

**강원도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현재)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	인구(명)
합 계	16,873.50	685,005	1,549,507
춘천시	1,116.38	115,044	277,997
원주시	867.97	138,380	332,995
강릉시	1,040.38	93,774	214,560
동해시	180.2	40,338	93,895
태백시	303.47	22,293	47,501
속초시	105.7	37,084	81,992
삼척시	1,186.53	34,601	70,839
홍천군	1,819.77	31,443	70,336
횡성군	997.66	20,821	45,777
영월군	1,127.64	19,990	40,216
평창군	1,463.77	20,601	43,500
정선군	1,219.72	19,519	39,197
철원군	889.43	22,017	48,799
화천군	908.97	13,668	27,020
양구군	706.62	11,140	24,089
인제군	1,645.15	15,594	33,255
고성군	664.3	15,324	30,060
양양군	629.86	13,374	27,479

※ 참고 : 총 193개 읍·면·동 중 주민 미거주 5개 면과 면장 미실시 1개 면이 제외돼 현재 187개 읍·면·동임.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면은 철원 근동과 원동, 원남, 임남면, 고성 수동면이며 철원 근북은 강화읍에서 관할하고 있음.  
 ※ 면적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임.

**재정**

2016년도 총 예산 규모는 12조4천393억원으로, 도청이 5조11억원이고, 18개 시·군이 7조4천382억원이다. 도청 예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3천116억원, 특별회계가 6천895억원이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1. 여주-원주 철도, 오색케이블카 2대 현안 해결
  - 오색케이블카 설치(8.28), 여주-원주 철도사업 추진(11.19) 확정
2. 2년 연속 국비 6조원대 확보
  - 국비 6조3천28억원, 2014년 대비 2천312억원 증가
3. 행복한 기다림 동계올림픽 본격 추진
  - 올림픽 특구 관광개발사업 본격 추진, 전국체전 성료
4. 양양국제공항 올림픽 거점 공항 육성
  - 개항공항지정(2월 6일), 첫 모기지 항공사 유치(코리아 익스프레스)

**2016년도 강원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예산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 계	5,001,139	4,311,600	327,755	361,784
지방세	797,000	797,000	-	-
보통세	623,000	623,000	-	-
취득세	383,000	383,000	-	-
등록면허세	32,000	32,000	-	-
지방소비세	208,000	208,000	-	-
목적세	166,000	166,000	-	-
지역자원시설세	31,000	31,000	-	-
지방교육세	135,000	135,000	-	-
2014년도 수입	8,000	8,000	-	-
세외수입	155,221	97,188	32,007	26,066
경상적 세외수입	45,430	19,304	340	25,786
임시적 세외수입	109,791	77,884	31,667	280
지방교부세	730,300	730,300	-	-
보조금	2,593,023	2,403,384	189,639	-
지방채	245,000	130,000	-	115,0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80,595	153,768	106,109	220,718

**2016년도 강원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	예산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합 계	5,001,139	4,311,600	327,755	361,784
일반공공행정	653,569	291,986	-	361,583
공공질서 및 안전	255,391	188,185	67,206	-
교육	198,699	178,523	20,176	-
문화 및 관광	695,608	695,608	-	-
환경보호	369,977	369,977	-	-
사회복지	1,328,987	1,091,737	237,250	-
보건	63,563	63,563	-	-
농림해양수산	475,215	475,215	-	-
산업·중소기업	81,528	79,289	2,239	-
수송 및 교통	180,040	180,040	-	-
국토 및 지역개발	284,616	284,616	-	-
과학기술	2,450	2,450	-	-
예비비	47,305	47,284	21	-
기타	364,191	363,127	863	201

5. 해양관광산업 육성 기반 마련
  - 크루즈 첫 취항(2016년 1월 7일),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합의(14.7km)
6.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 본 궤도 진입
  - 삼척해변 침식, 퇴적 저감시설 등 합의(10월 26일), 2016년 3월 착수 예정
7.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8월 1일)
  - 속초해양산업단지 46만4천㎡, 가공무역, 보세공장, 보세창고, 전시장, 판매장
  - GTI모델형 종합보세구역으로 육성

- 8.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료
  - 수출계약 130건, 2천590만 달러, 현장 판매 22억8천만원
  - 해외사무소 확대개편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2본부(베이징, 도쿄), 5지사
- 9. MICE산업 육성을 통한 강원도 가치제고
  - 세계산불 총회 성료, 2017년 10월 26~29일, 속초일원, Pan Asia Hash 유치
- 10. 농산어촌의 소득증대 및 활력화
  - 전국 최초 명태치어 생산 방류, 아시아 최초 바다연어 양식 성공

## 중점 추진사업

2016년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위도를 방문할 내·외국인 손님맞이 준비에 매진하고, 미래 100년 강원경제를 위한 경제구조 개편 정책추진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

- 강원도의 우수한 문화, 예술, 수려하고 아름다운 관광명소, 뛰어난 음식, 제품 등을 세계인에게 홍보하고 평창-도쿄-베이징을 연결하는 올림픽 루트를 구축하는 등 동계올림픽을 통한 강원도정의 성장동력 마련에 온 힘을 다하고
- 위기가자 기회인 한·중 FTA를 계기로 해외 거점·유통망 마련, 공항, 도로, 항만, 물류산업단지 등 SOC 확충, R&D,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농업, 양식어업, 산악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구조 개편에 주력하기로 했다.

### < 도정 역점사업 >

1.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지역발전 기반 구축
2. 강원경제 영토확장 및 글로벌화 구현
3.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재구조화 추진
4. 동북아 시대 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5. 사람중심의 따뜻한 강원 실현

## 산 업

**농림수산업** 강원도 농가 수는 6만9천887가구로 전국농가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원주시(8천515가구)와 강릉시, 홍천군 순으로 농가수가 많으며, 태백시와 속초시는 적다. 가구당 경지면적은 일반적으로 군 지역이 시지역보다 넓었으며 철원군이 가장 넓고 동해시가 가장 좁았다.

강원도의 산림은 국토의 허파기능과 수도권 생명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하며, 임야면적은 136만8천571ha(2015년)로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임업인구는 1만9천337명으로 우리나라 임업인구의 8.3%에 해당한다. 주요 임산물은 용재(나무생산), 산나물, 수실, 약용, 버섯 등이다.

강원도 어가인구는 8천74명(2015년)으로 국내 인구의 0.5%에 해당한다. 어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어선의 t 수를 살펴보면 속초시가 4천49대로 가장 많고, 강릉시, 고성군 순이며, 국내 어항은 총 58개소로 영동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어항기능이 발달했다.

**광업**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광물로는 철, 석회석, 석탄, 규석, 고령토 등이 있으며 이중 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석회석은 국내 최대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고품위 규석이 확인되면서, 규석에 대한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입** 강원도 수출·입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이 19억2천만 달러이고 수입은 34억3천만 달러로 수출입지수는 15억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강원도의 주요 수출품은 의류기기, 합금철, 자동차부품, 시멘트 등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다.

## 사 회

**주택** 도내 주택보급률은 2015년 현재 108.6%로 전국 광역시·도 중 8번째로 높았으며, 전체 건축물(동수기준)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은 63.5%이다.

**교통** 강원도에 등록된 차량은 2015년 기준으로 총 69만 4천40대이며, 휘발유 차량비율이 42.4%로 가장 높고 경유와 LPG차량 순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51만4천874대, 승합차 3만2천264대, 특수차량은 2천192대, 화물차량은 14만4천710대가 있다.

**보건·사회복지** 강원도의 의료기관은 2015년 현재 병(의)원 798개소, 약국 63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보건소, 한의원, 치과, 노인병원 등이 780개소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강원도의 아동 복지시설은 184개소로 춘천시 36개소, 원주시 37개소, 강릉시 26개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도 전체 7명이며, 장애인은 총 9만8천317명으로 국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모두 67곳이며 수용가능인원은 1천662명이다. 또한 도내 시·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원주시가 418개소로 가장 많으며, 춘천시가 354개소, 강릉시가 298개를 보유하고 있고 군지역은 평균 137개소이다.

**환경** 도내 하수발생량은 춘천시가 8만7천632t, 원주시 6만4천287t, 강릉시 6만2천316t 순으로 많았고, 1일 쓰레기 배출량은 강릉시가 1천14.9t, 원주시 663.7t, 춘천시 571.4t이다.

## 교 육 · 문 화

**학생** 도내 학생 수는 19만9천640명이다. 유치원생 1만7천387명, 초등학교 7만8천414명, 중학생 4만8천73명, 고등학생 5만4천836명, 특수학교 930명으로 중고생 비율이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교원 수는 1만6천996명이다.

**축제** 도내에는 총 103개의 지역축제가 있다. 유형별로 관광축제가 48개, 전통민속축제가 22개, 문화예술축제가 15개, 기타축제가 18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는 화천산천어축제와 양양송이축제다.

**관광객** 2015년 기준 도내 관광객 방문객은 1억204만8천명으로, 내국인은 9천990만2천 명, 외국인인 214만6천 명(중 12%)이 방문했다. 지역별로는 속초시가 1천375만6천 명으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은 강릉시가 1천201만3천 명, 춘천시가 1천 178만6천 명 순이다. 계절별 추이를 보면, 봄·가을과 여름·겨울에 균등한 방문객 분포를 보이고 있어 4계절 관광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남이섬으로 총 96만9천 명이다.

**문화재** 도내 지정문화재는 총 632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186건, 강원도지정문화재, 강원도문화재자료 409건, 등록문화재 37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10건, 보물이 77건, 사적 17건, 천연기념물 42건, 중요민속문화재 11건, 명승 25건, 중요무형문화재 4건이 있으며, 강원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60건, 무형문화재 25건, 기념물 78건, 민속자료 4건이다. 전통사찰은 47개소가 있다.

**문화시설** 강원도에는 2015년 현재 문화원 19개소와 문화예술회관 19개소, 공공박물관 52개소, 공공미술관 4개소, 공공도서관 52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 의회활동

### 원구성

〈의장〉 김시성

〈부의장〉 김동일, 권석주

〈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렬)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

〈정당별 의석〉 의원 수는 44명으로서 지역구 40명, 비례대표 4명이다. 정당별 의석 수는 새누리당 36, 더불어민주당 6, 무소속 2명으로 분포되어 있다.

### 의회운영

1) 회기운영 일수 - 2015년 회기운영 일수는 총 10회 126일(2014년 대비 6일 증가)로 정례회 2회 53일간, 임시회 8회 73일간 개최됐다.

2) 의안처리 현황 - 2015년 총 의안처리 건수는 267건으로 2014년(190건) 대비 40.5% 증가했다(의원·위원회 발의 조례안은 65건으로 2014년 27건 대비 140% 증가). 세부적으로는 조례안 176건, 예·결산안 12건, 동의·승인안 40건, 건의·결의안 27건, 규칙·기타안 26건을 승인·처리했다.

※ 의안접수 281건(처리 276건, 계류 14건)

**행정사무감사** 2015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7개 기관을 대상으로 1천142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해 1천192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412건을 시정·처리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레고랜드, 동서고속철도 조기착공 관련 등 강원도 내 주요 현안과 강원도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 미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5분 자유발언** 의원 및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주요 관심사안이 도의회를 통해 전달되고 대안이 제시됐던 '5분자유발언'은 2015년 총 31명의 의원이 81회에 걸쳐 실시했다(2014년 36명, 52회). 지역 현안과 도청·도교육청의 각종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의원들을 통해 전달되는 등 지역주민의 욕구충족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도민 의 중점 관심사항에 대한 질문 및 불합리한 시책, 시급한 지역 현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2015년 4회(3월·6월·10월·11월) 8일간 27명의 의원이 160건의 질문을 했고, 160건의 질문 중 도정과 관련한 사항이 121건, 교육행정과 관련한 사항이 39건이었다(2014년 16명 96건, 도정 78건, 교육행정 18건).

**서면질문 처리** 2015년 서면질문은 308회에 걸쳐 총 1천96건의 서면질문을 했고, 이중 도정과 관련한 사항이 723건, 교육행정과 관련한 사항이 373건이었다(2014년 222회 677건, 도정 480건, 교육행정 197건).

### 특별위원회 운영

1) 2015년 특별위원회 현황

구분	대 별	특위명칭	활동기간	구성인원	비고
8개 위원회	9대 2014.7.1 ~ 현재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4.09.25 ~ 15.07.06	15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14.09.25 ~ 16.6월 말	10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14.09.25 ~ 16.6월 말	10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4.09.25 ~ 16.6월 말	10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14.09.25 ~ 16.6월 말	10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14.09.25 ~ 16.6월 말	10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15.03.20 ~ 16.6월 말	10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07.07 ~ 16.07.03	15	

### 2) 특별위원회별 활동

#### ①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법보다 우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고, 특별법에 따른 예산이 각종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과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접경지역 최대 관심사인 'DMZ생태평화공원을 강원도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펼쳤다.

#### ②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준비 지원을 위해 구성·활동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각종 대정부 건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확장공사 국비지원,

알펜시아 스포츠파크지구 국가인수 등 각종 제반시설과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을 건의하는 등 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전달하는데 앞장섰고,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유·무형적 가치와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을 집중했다.

③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해 구성된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다른 광역자치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필요성 피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④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자립기회 확대 등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강구를 위해 구성된 장애인복지특별위원회는 강원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종합계획의 심의, 장애인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구현을 강구했다.

⑤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도의회 차원에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생계의 안정적 유지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는 폐광지역의 경제지립형 도시기반 구축 등을 위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심층 논의·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진흥지구 개발 방안 및 지역 현실에 부합된 폐광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 대책 강구를 했으며,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확대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석탄 전성기시대에 버금가는 안정적인 제2의 폐광지역 부흥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⑥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 수준인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안 심의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재정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해 강원도의 재정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및 정책대안 제시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재정건전화특별위원회는 강원도의 재정 상황(세입·세출)을 심도있게 조사·연구·분석해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자료로 제공했고, 향후 도래할 수 있는 강원도의 재정운영의 위험성을 사전 제거하고 급박한 사회변화에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3대 의정방침의 실천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의 행복, 강한 의회 구현'이라는 비전아래 도민을 편안하게 모시는 '섬기는 의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의회', 소통을 위해 도민에게 다가가는 '가까운 의회'를 3대 의정방침으로 설정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항상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道花** : 백목련    **道鳥** : 까치

**道木** : 느티나무    **캐릭터** : 고드미, 바르미

**도청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도지사** : 이시종(李始鍾)



개 관

**연혁** 서북으로 차령산맥과 동남으로 소백산맥의 중간에 자리 잡은 충북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땅이었다. 삼국시대 들어 중부는 백제, 남부는 신라, 북부는 고구려가 점유해 삼국 세력다툼의 각축장이 됐다.

고려 성종 때(995년) 중원도에서 예종 원년(1106년)에 처음으로 충청도로 정해진 뒤 명종 2년(1171년)에 양광도로 개칭됐다. 공민왕 5년(1356년)에 다시 충청도로 불렸다.

조선 고종 33년(1896년) 8월 4일 13도제가 실시되면서 충청북도가 설치됐고 충주에 도청을 뒀다가 1908년 청주로 이전했다. 1946년 청주읍이 부로 승격, 1부 10군 3읍이 됐다. 1949년 청주부가 시로 바뀌었으며 1956년 충주읍과 1980년 체천읍이 각각 시로 승격됐다.

1990년 출장소를 설치했던 증평이 2003년 독립자치단체인 증평군으로 승격됐다. 1995년 청주시 동부출장소가 상당구로, 서부출장소가 흥덕구로 승격했다.

2012년 6월 27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 통합 결정,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다.

2012년 7월 1일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금호리, 등곡리, 노호리, 문곡리, 행산리, 산수리, 갈산리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

충청북도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m <sup>2</sup> )	가구	인구(명)
합 계	7,407.31	669,503	1,583,952
청 주 시	940.28	336,408	831,912
충 주 시	983.56	87,463	207,913
제 천 시	883.45	59,856	136,138
보 은 군	584.25	16,147	34,296
옥 천 군	537.11	22,967	52,404
영 동 군	845.72	23,586	50,693
증 평 군	81.83	15,790	36,671
진 천 군	407.26	29,750	67,981
괴 산 군	842.44	19,620	38,787
음 성 군	520.3	43,279	96,396
단 양 군	781.11	14,637	30,761

\* 주민등록 인구수 : 158만3천952명( 남 : 79만8천896명, 여 : 78만5천56명)  
등록외국인 3만2천637명 포함 시 ⇨ 총161만6천589명